

“선상 위 짜릿한 손맛”...강진서 감성돔 낚시대회 개최

오는 27일 마량항 원형방파제 일원 소형어선 대회...선착순 150명 모집 '마량항' 중심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강진군이 전국 낚시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감성돔 선상낚시대회를 열고 마량항을 뜨겁게 달군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27일 강진 앞바다 마량항 원형방파제 일원에서 '2026 강진피싱마스터스 강진군수배 감성돔 선상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의 강태공들을 맞이한다.

이번 대회는 민선 8기 핵심 전략과제인 '바다 낚시 어선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전국바다낚시대회를 시작으로 강진 앞바다의 탁월한 낚시 여건과 마량항의 우수한 해양관광 기반

을 널리 알리고, 선상낚시를 지역 대표 해양레저 콘텐츠로 굳건히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완전히 새로워진 운영 방식이다. 기존 97급 대형 낚시어선 위주로 치러지던 획일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오직 '소형어선'으로만 경기를 치른다.

군은 소형어선 특유의 뛰어난 기동성을 심분 활용에 참가자들이 한층 생동감 넘치고 박진감 있는 감성돔 낚시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회 참가 규모는 총 150명으로 선착순 마감되며, 참가비는 1인당 15만원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낚시인은 '강진피싱마스터스' 공식 누리집(www.mastersmfm.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무엇보다 총 2천300만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시상 규모가 참가자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한다. 1위 우승자에게는 1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2



지난해 '2025 강진피싱마스터스' 강진군수배 감성돔 선상낚시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위 500만원, 3위 300만원, 4위 150만원, 5위 10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이어 6-10위 각 30만원, 11-20위 각 10만원, 21-30위 각 5만원 등 폭넓은 시상

이 준비된다.

본 경기는 철저한 선박 안전 관리와 공정한 계측 및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마량항 일원에서 치

러진다.

군은 이번 대회에 참가자와 동반 가족들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지역 내 숙박업소, 음식점, 낚시용품점 등 상권 전반에 걸쳐 체류형 소비가 촉진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다채로운 후속 대회와 연계해 강진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바다낚시 메카이자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확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소형어선으로만 진행되는 첫 감성돔 낚시대회인 만큼 기존 대회와는 차원이 다른 짜릿한 현장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전국의 낚시인들이 탁월한 강진 앞바다에서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집에서 든든하게”...함평형 돌봄서비스 호응

복지 사각지대 해소·안전망 구축 맞춤형 복지 200여건 연계·제공 병원 동행·가사 지원·주거개선 등

함평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함평형 통합 돌봄서비스 '함께함평, 평생함평'이 시행 초기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첫선을 보인 이 사업을 통해 두달여 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약 200건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신속하게 연계·제공됐다.

'함께함평, 평생함평'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해 기획된 특화 사업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절실한 대상자가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체형 복지 서비스다.

군은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사 및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방문 이·미용 및 목욕 ▲주거 환경 개선 등 대상자 개개인의 생활 여건과 욕구에 꼭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각 읍·면 업무 담당자와 군청 가족행복과 돌봄통합팀, 그리고 일선 서비스 제공 기관

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원스톱 복지 전달 체계를 확고히 가동해 주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한 어르신은 "배우자와 사별 후 자녀들도 타지에 있어 홀로 지내며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집까지 직접 찾아와 꼭 필요한 도움을 챙겨주니 한결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시행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만족도는 지역 내 밀착형 돌봄 수요가 그만큼 절실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통합 돌봄 서비스의 질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사)전남도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전반기 파크골프 2급 지도자 자격 검정'이 5일 해남군 우슬체육관과 삼산파크골프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 모습. <해남군 제공>

해남서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 검정' 치른다

오늘 우슬체육관·삼산파크골프장서

전국적인 파크골프 열풍 속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는 올해 첫 자격 검정이 해남에서 대규모로 열린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사)전남도파크골프협회 주관하는 '2026년 전반기 파크골프 2급 지도자 자격 검정'이 5일 해남군 우슬체육관과 삼산파크골프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한파크골프협회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증 시험인 이번 검정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520명의 응시자가 지원했다.

평가는 5일 오전 우슬체육관에서 규정과 지도자 소양 등을 묻는 지필시험을 치른 뒤, 삼산파크골프장으로 자리를 옮겨 실제 경기 운영 능력과 현장 지도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해남군은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

번 대규모 검정을 유지하며 스포츠 명품 도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뽐냈다.

현재 해남에는 중부권(삼산), 서부권(산이), 남부권(송지) 등 3개소의 파크골프장(각 18홀)이 운영 중이며, 동부권(27홀) 등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응시자와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해경, 최신예 3천t급 '태평양20호' 취역

길이 123m·최대 항속 6천해리

불법조업 강력 단속...서해 수호

목포해양경찰서가 서해 영해 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최신예 대형 경비함정을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

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해경 전용부두에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예 3천t급 경비함정 '태평양20호(3020함·사진)' 취역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새롭게 서해에 배치된 태평양20호는 배수톤수 3천800t, 길이 123m, 폭 15m 규모로 표준 축구장보다 긴 체급을 자랑한다.

최고 속력은 2노트(시속 약 45km), 최대 항속 거리는 6천해리(약 1만1천112km)에 달해 광범위한 해역을 무대로 장기간 경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첨단 기술력으로 건조된 이 함정은 나뉘어 지능화되는 해상범죄와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강력히 억제하고, 해양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를 갖췄다.

해수부 목포해경서장은 "압도적인 성능의 경비함정 배치로 영해 침범 등 긴급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명실상부한 서해의 수호신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해양 주권을 완벽히 수호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진도군, 60세 이상 무릎·안질환 수술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군민이다.

진도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추진 중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사업'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5년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짐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까지 무릎 52건, 안질환 305건 등 총 357건의 수술비를 지원하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며,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에 거주하는 무릎 인공관절 최대 120만원, 안질환(백내장·녹내장 등 급여외 부분) 최대 30만원이다.

이와 함께 진도군 보건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연중 상시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술비가 부담되는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보건 의료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영암군, 생성형 AI 활용 행정 혁신 '속도'

223명 수료...이달 고급 과정 운영

영암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 실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스마트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영암군에 따르면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AI 자동화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2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해, 초급 과정인 1차 교육에 107명, 중급 과정인 2차 교육에 116명 등 총 223명의 공직자가 수료했다.

이번 교육은 각 부서 업무 특성에 맞춘 생성형 AI 기초부터 업무 자동화 실습까지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이달 수업을 한층 높은 고급 과정을 개설한다.

업무 활용 자동화 챗봇 만들기, AI 기반 엑셀 자동화, 클라우드 코드 활용 등 심화 과정을 통해 공직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영주 홍보전략실장은 "직원들이 AI 기술을 단계별로 익혀 실제 업무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행정 업무의 생산성을 대폭 높여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완도산 건다시마 첫 위판...26t 거래 성황

전년대비 물량 50.6% 증가

내달 초까지 수확·건조 박차

청정 완도산 건다시마가 올해 첫 위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출하에 돌입했다.

4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완도급일수협 건다시마 위판장에서 열린 첫 위판에서 26t이 거래되며 총 1억9천만원의 위판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첫 위판과 비교해 물량은 50.6%, 위판액은 32.1% 증가한 수치로, 위판 가격은 1kg당 최고가 9천700원, 최저가 5천500원, 평균가 7천289원에 형성됐다.

완도군은 지난해 기준 37만5천t의 다시마를 생산해 전국 총생산량(66만t)의 66%를 책임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최대 주산지다.

완도 청정 해역에서 자란 다시마는 특유의 깊은 맛과 풍부한 향을 자랑하며, 요오드와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 담겨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7일에는 어업인들과 함께 초매식 및 풍작 기원제를 열고 안전 조업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 첫 위판을 시작으로 금일음, 신지면, 약산면, 생일면 일대에서는 오는 7월초까지 고품질 건다시마 수확 및 건조 작업이 활발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완도=윤보현 기자